

“멋진 주인공, 저 닮았다고 말하기가 ... 호호”

영화 '엑시트' 주연 임윤아

“제가 울여름 유일한 여자 주인공이라고 하나까 기분 좋네요.”

임윤아(29)가 영화 '엑시트'로 첫 영화 주연에 도전했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엑시트'는 재난영화지만 신파나 민폐 캐릭터와 같은 클리셰를 벗어났다.

'엑시트'가 뻔한 '한국형 재난영화'가 되지 않는 데에는 임윤아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의 역할이 컸다. 의주는 영화장 부점장으로, 유독가스가 도심을 뒤덮는 재난이 발생하자 손님들을 먼저 대피시킨다.

2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그동안 제가 맡은 역할들 보다 더 능동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판단력이 빠른 캐릭터라 끌렸다”며 “인간적인 모습도 좋았다”고 말했다.

“실제 제 성격과 닮은 부분요? 있긴 하겠죠. (웃음) 주변에서는 책임감이 강하거나 시원시원한 성격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주가 멋진 여성인데 제가 많이 닮았다고 하기가... (웃음)”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용남(조정석 분)과 달리 의주의 가족과 배경은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

임윤아는 “의주가 대학 시절 용남의 고백을 거절한 것은 본인의 목표에 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어서 감독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의주는 국문과 전공이고, 공부할 때 열심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용남이 고백을 한 거죠. 의주도 호감은 있었지만, 좀 더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주가 현재 하는 일은 전공을 살린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 거죠. 딱딱한 현실을 사는 직장인이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처럼 아래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유독가스를 피해 의

한국형 재난영화

능동적·책임감 있는 역할

대부분 대역없이 직접 연기

인생작 됐으면 좋겠어요

주와 용남은 필사의 클라이밍으로 건물을 오르거나 또 오른다.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는가 하면 밧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한다.

“고소공포증이 있긴 한데, 와이어가 있어서 무섭진 않았어요. 재미있기도 했고요. 대역이 있긴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직접 연기했어요. 소녀시대 공연에서 와이어를 쓴 적이 몇 번 있어서 와이어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연과 달리 영화에서는 종이 와이어를 달고 있어야 해서 좀 더 힘들었죠.”

클라이밍 역시 촬영 2-3개월 전부터 갑자기 선수를 선생님으로 두고 배우며 연습했다.

“재난영화를 찍고 나서 보니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구조 신호나 방독면 위치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요. 그런 팁들을 얻은 것 같아요. 관객들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07년 MBC TV 드라마 '9회말 2아웃'으로 연기를 시작한 임윤아는 어느덧 데뷔 12년 차 배우가 됐다.

“바로 여제가 연기 데뷔일이었대”고 말한 임윤아는 “항상 최선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때때로 든다”고 털어놨다.

“미묘하게나마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악역을 맡는다거나 무서운 스릴러 장르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차근차근히 해야 보는 분들도 낯설지 않겠죠.”

그는 “첫 영화 주연작인 '엑시트'가 '인



생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역에 있는 배우들에게는 소중하진 않은 것 같다.

“아직 멤버들이 '엑시트'를 못 봤는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최근에 개인 활동이 많아졌는데 계속 꾸준히 연락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이동휘·김병철 ‘쌈니다, 천리마마트’ 주연

tvN 새 금요드라마

배우 이동휘와 김병철이 tvN 새 금요드라마 ‘쌈니다, 천리마마트’에 출연한다.

드라마 홍보사 블리스미디어는 23일 이동휘, 김병철, 박호산, 이순재, 정혜성 5명이 ‘쌈니다, 천리마마트’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동명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는 대마그룹의 ‘유배지’ 격인 천리마마트를 기사 회생시키려는 점장과 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사장이 만들어내는 코믹극이다.

배우 이동휘는 재래시장에도 밀리는 천리마마트를 유통업계 1위로 만들고 싶은 점장 분석구로, 김병철은 천리마마트를 망



배우 이동휘(왼쪽)와 김병철

가뜨려 대마그룹에 복수하려는 사장 정복동으로 분한다.

박호산과 이순재, 정혜성은 각각 대마그룹 전무 권영구, 회장 김대대, 팀장 조미란을 맡는다. 연출은 백승룡 PD가 담당한다. /연합뉴스

이상민 “18년간 채무 책임지고 갚았다”

사기혐의 피소에 반박

“악성댓글 강경하게 대응”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하며 악성댓글 등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추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민은 앞서 모 걸상사와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라며 “모 걸상사와 프로모션, 광고차 등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이는 계약서와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또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민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왔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온라인상 악의적 비방에도 선처나 형의 없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이상민을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전남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이상민이 최근 많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름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스포츠(재)	00 저스티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2019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야사 콩도령 2		20 꾸러기 식자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꼬마돌도 도도 2 50 에어로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여름방학 스페셜 뮤직특목>	20 모두 다 쿵따리	00 네오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황금정원(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여름방학 스페셜 대학의 회열	00 저스티스	05 오래봐도 예쁘다 1~2부	00 닥터타정
[11]	35 UHD 스포츠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3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점수!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하이라이트	20 나이트리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다큐동화 달팽이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15 띠띠뽀 띠띠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40 다큐 시선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띠띠뽀 띠띠뽀(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맹 유치원1~2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여름이니까 몽골,바이칼 4부 시베리아 진주의 여름 알선쇼>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15:00 탐영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8:45 만들어볼까요? 빈센트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여름 김치를 아시나요? 4부>
09:00 마사와 곰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50 다큐 시선
09:30 물랑	16:00 예술아 놀자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덩동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낫다. 48년생 귀인으로 부터 절실했던 당해사황에 대해 은혜를 입게 된다. 60년생 보완토록 하자. 72년생 살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84년생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8, 50</p>	<p>午 42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제각각이다. 54년생 놀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66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했을 때 효과가 크다. 78년생 뻔히 다 예견하면서도 일부러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90년생 실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보자. 행운의 숫자 : 24, 32</p>
<p>丑 37년생 이상적인 상태로 종결지어질 수다. 49년생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언행 하라. 61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발언해도 되는 판세이다. 73년생 진언이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를 수밖에 없다. 85년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호전 되어간다. 행운의 숫자 : 18, 52</p>	<p>未 43년생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겠다. 55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67년생 목표에 성큼성큼 접근하고 있느니라. 79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91년생 새로운 것보다는 옛것이 더 낫겠다. 행운의 숫자 : 48, 59</p>
<p>寅 38년생 무시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50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실득력의 차이가 크다. 62년생 가장 기본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느니라. 74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86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리라. 행운의 숫자 : 93, 20</p>	<p>申 44년생 선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56년생 별 것이 없다. 6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80년생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92년생 약간 지연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목적은 달성 되겠다. 행운의 숫자 : 25, 87</p>
<p>卯 39년생 끝까지 계속해야 계획대로 실행하게 된다. 51년생 중폭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스스로 따라 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5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87년생 파격적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7, 85</p>	<p>酉 45년생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다. 57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69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81년생 수단한다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93년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9, 03</p>
<p>辰 40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52년생 결과적으로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64년생 지나치다보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76년생 사려 깊어 처리해야겠다. 88년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16, 88</p>	<p>戌 34년생 공물여 왔던 바가 공격적인 결실을 보게 되리라. 46년생 불균형이 보인다. 58년생 평상시에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것이 편리함을 도모한다. 70년생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하겠다. 82년생 감언이설에 현혹된다면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26, 21</p>
<p>巳 41년생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53년생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65년생 참신한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다. 77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89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2, 30</p>	<p>亥 35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한 인식하라. 47년생 대리 만족을 할 운세에 놓여 있다. 59년생 예기 못한 풍파를 만날 수도 있다. 71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83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행운의 숫자 : 31, 3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